

Fixed
Income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10월 FOMC: 금리
인상 잠시 쉬어가기

- 美 기준금리 4.00% 동결. 인상 주장하는 2인 반대로 만장일치 아님
- “물가 여전히 높고, 3Q 빠른 성장률” “금융여건 이전보다 긴축적”
- 12월 추가 인상 예상. FOMC 회의 횟수 27년 7회, 28년 6회로 축소

미 연준, 10월 기준금리 4.00%(상한 기준)로 동결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한 달 만에 정책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10월 27일~28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인상을 주장하는 2인(리사 쿡, 베스 해머)의 소수 의견이 나옴에 따라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금융여건은 이전보다 긴축적”

10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9월에 이미 인상이 이뤄졌고, 긴축의 경우 연속적인 대응보다는 징검다리식 인상이 많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컨센서스였다. 반면 추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워시 의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하지만 이미 취임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결정 및 기자회견을 진행해 온 만큼 워시 의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포워드 가이드언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나 9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지금은 긴축 기조’라는 큰 틀이 정해진 상황에서 나온 워시 의장의 발언은 “크게는 긴축 사이클이나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이에 당사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2026년 연말 미국 기준금리 4.25%(상한 기준) 전망).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축적될 경우 인플레 2% 목표에 적합한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가 인상됐고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워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때 크게 논란이 됐던 금융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금융여건의 경우 워시 의장이 지난 여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금리 인상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냐는 비판을 받았던 당시의 단초가 됐던 사안이었다.

워시 의장은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이전보다 긴축적으로 변했지만, 이를 긴축적이라고 규정할 의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금융여건은 이전보다 분명히 긴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번과 같이 인상 효과를 점검할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한편 연준은 현행 연간 8회인 FOMC 회의 횟수를 2027년 7회, 2028년 6회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경기 강력한 속도로 확장된다고 밝힌 성명서

성명서는 경기 평가의 수위가 더 강해졌으나 대부분은 일부 표현이나 기술 방식에 다소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성명서에서는 경기 판단과 관련해 “경제 활동은 강력한(strong)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해 지난 달 견조한(solid)에 비해 톤이 강해졌다.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문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국내 소비가 탄력적이었다(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생산성 증가와 자본 지출은 강하다(Productivity growth and capital investment are strong)”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와 속도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는 문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Inflation remains elevated)”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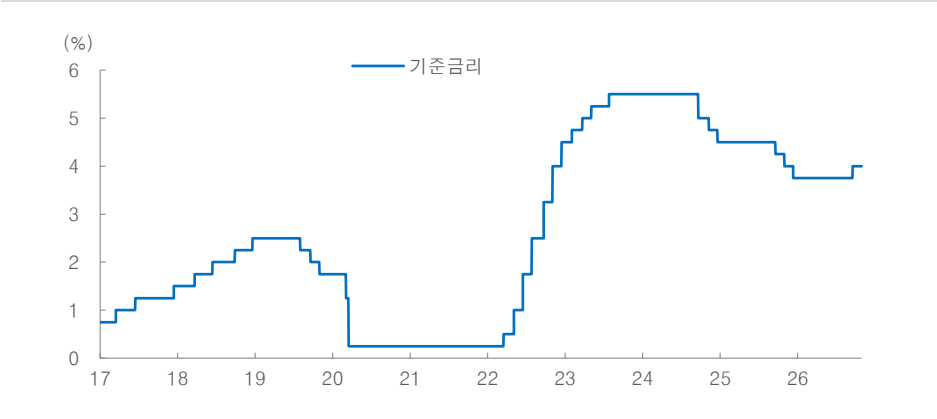
다만 이후 단락은 “더 많은 정보의 축적은 위원회가 물가를 시의적절하게 위원회의 물가 목표 2%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The accumulation of more information will help the Committee determine the policy stance appropriat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이라며 지난 달의 “오늘 조치가 위원회의 물가 목표 2% 달성을 시의적절하게 뒷받침할 것(Today's policy action will support a timelier retur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을 대체했다.

정책 이벤트 종료로 제한적 금리 하향 안정화 시도 가능

당사는 9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기로 대응한 만큼 10월 FOMC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 이벤트 자체가 일단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금리의 하향 안정화 시도는 일정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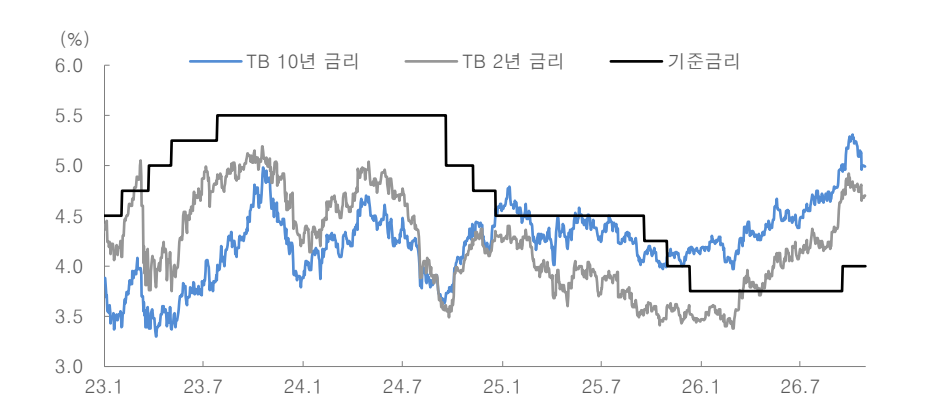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금리의 하락 시도가 이뤄질 경우 포지션 축소나 듀레이션 줄이기가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지속되고 있고 미국 채권시장의 고질적인 수급 부담이 상존하는 만큼 아직 유의미한 금리 고점이나 정점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림 1. 미 기준금리, 2026년 10월 4.00%(상한 기준)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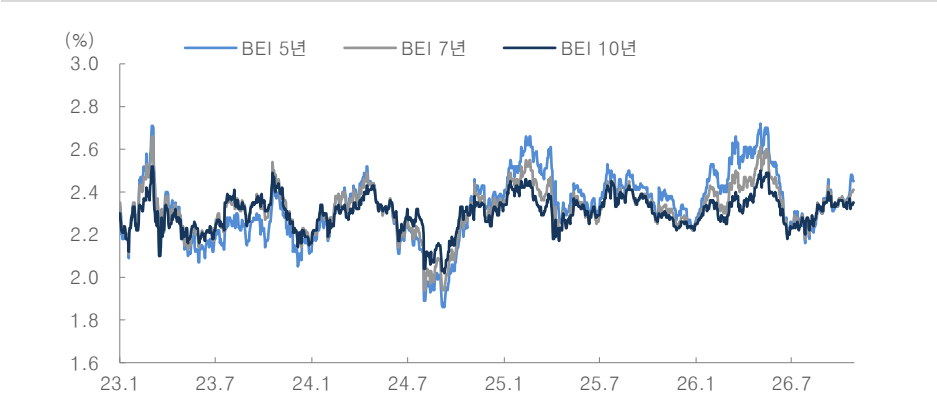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기준금리와 주요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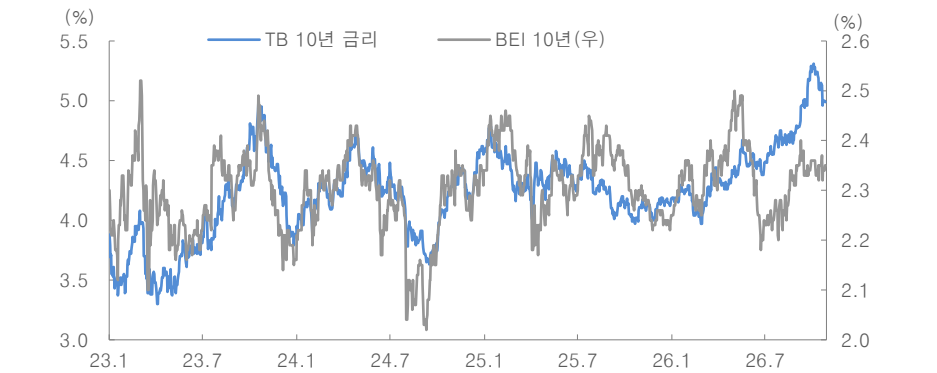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만기별 기대 인플레이션(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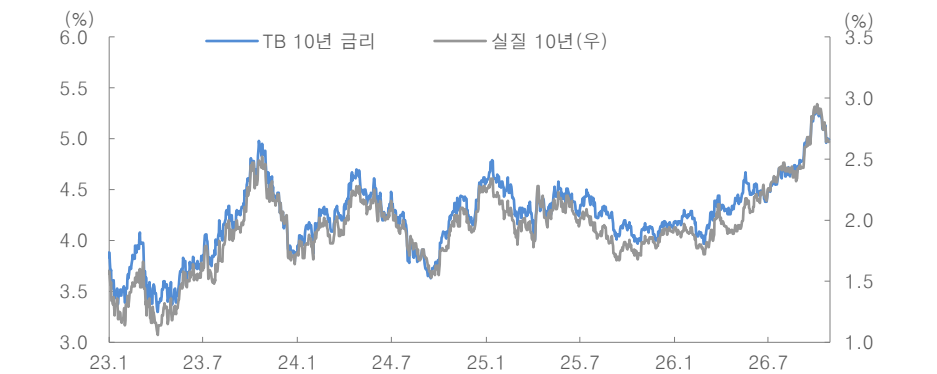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TB 10년 금리와 BEI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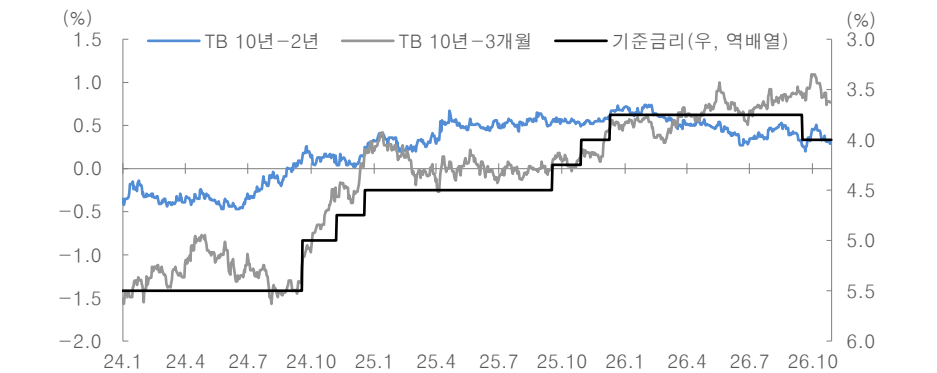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TB 10년 금리와 실질금리 10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미국 기준금리와 TB 10-2년, 10년-3개월 스프레드



자료: Fed,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10월 FOMC 성명서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pprov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release by a 10–2 vote: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3/4 to 4 percent, in support of the Federal Reserve'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trong pace. While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owing, in part, to geopolitical developments,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

Inflation remains elevated. The accumulation of more information will help the Committee determine the policy stance appropriat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 The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Voting against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Lisa D. Cook and Beth M. Hammack, who preferr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t this meeting.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